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Economy, Technology, and Security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한국의 생존과 번영 전략

경제기술안보연구원 총서 출판기념회

김성한 편저

김덕기, 김민성, 남명렬, 남정호
류재수, 왕윤종, 이수훈, 이승주
이은호, 정연봉, 하경석 공저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이 책이 일관되게 제기하는 핵심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략은 더 이상 국제연대와 자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연대를 어떻게 활용해 자강을 축적하고, 자강을 통해 어떻게 연대를 주도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연대는 의존과 같지 않으며, 자강은 고립과 다르다. 국제연대는 자강을 약화하는 제약이 아니라, 자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다. 동시에 자강은 국제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연대 없는 자강은 고립으로 귀결되고, 자강 없는 연대는 위기 앞에서 공허해진다. 이 두 요소는 대립이 아니라 순환의 관계에 있다.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한국의 생존과 번영 전략

김성한 편저

김덕기 김민성 남명렬 남정호 류재수 왕윤종
이수훈 이승주 이은호 정연봉 하경석 공저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한국의 생존과 번영 전략

편저자

김성한 •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 원장

공동 저자

김덕기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김민성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남명렬 •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 K-방산연구센터장

남정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류재수 • 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

왕윤종 •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이수훈 •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승주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은호 •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 경제안보연구센터장

정연봉 • 전 육군참모차장, 통국대 특임교수

하경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은 경제·기술·안보의 연계성과 융합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포괄적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설립되었다. 단순한 Think Tank의 역할을 넘어 실행력을 겸비한 연구원을 지향한다.



김성한
편저

명인문화사

명인문화사

문제의식 |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구조적 위기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경제·기술·군사 안보의
경계 붕괴

“순풍일 때는 기회였던 상호의존이,
폭풍 속에서는 위험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질문 |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경제기술안보연구원

질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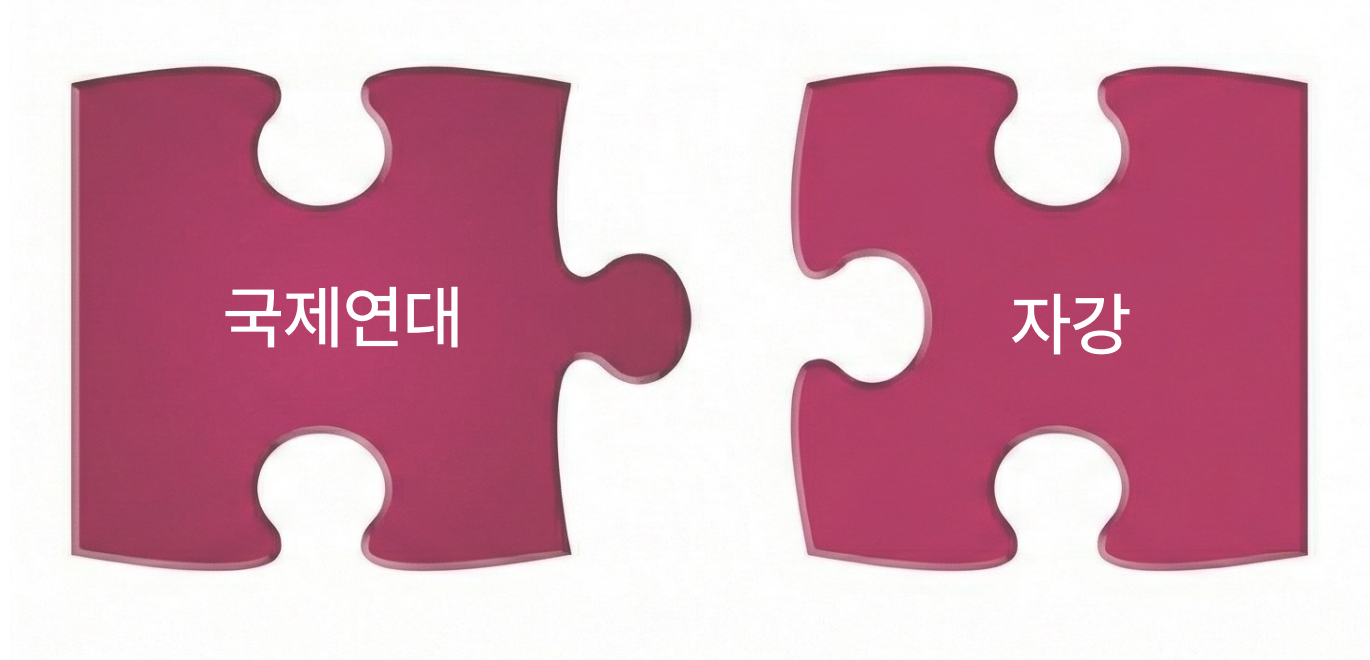
동맹 vs 자주 이분법은
여전히 유효한가?

질문 #2

한국은 어떤 전략 언어를
가져야 하는가?

**“이 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을 묻는다.”**

관점 |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국제연대와 자강: 대립이 아니라 결합의 관계

“한국의 전략은 국제연대와 자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자강 | 정책 자율성의 회복

공급망 위험 관리
(Derisking)

전략사업의
선택과 집중

국가의
정책 자율성 확보

“한국의 경제적 자강은 대외 개방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고 전략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술적 자강 | 핵심 기술 통제권



경제기술안보연구원

반도체 · AI · 배터리 · 원전
핵심 기술

기술동맹과 기술자립의
병행

“기술 자강이란 모든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통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제 기술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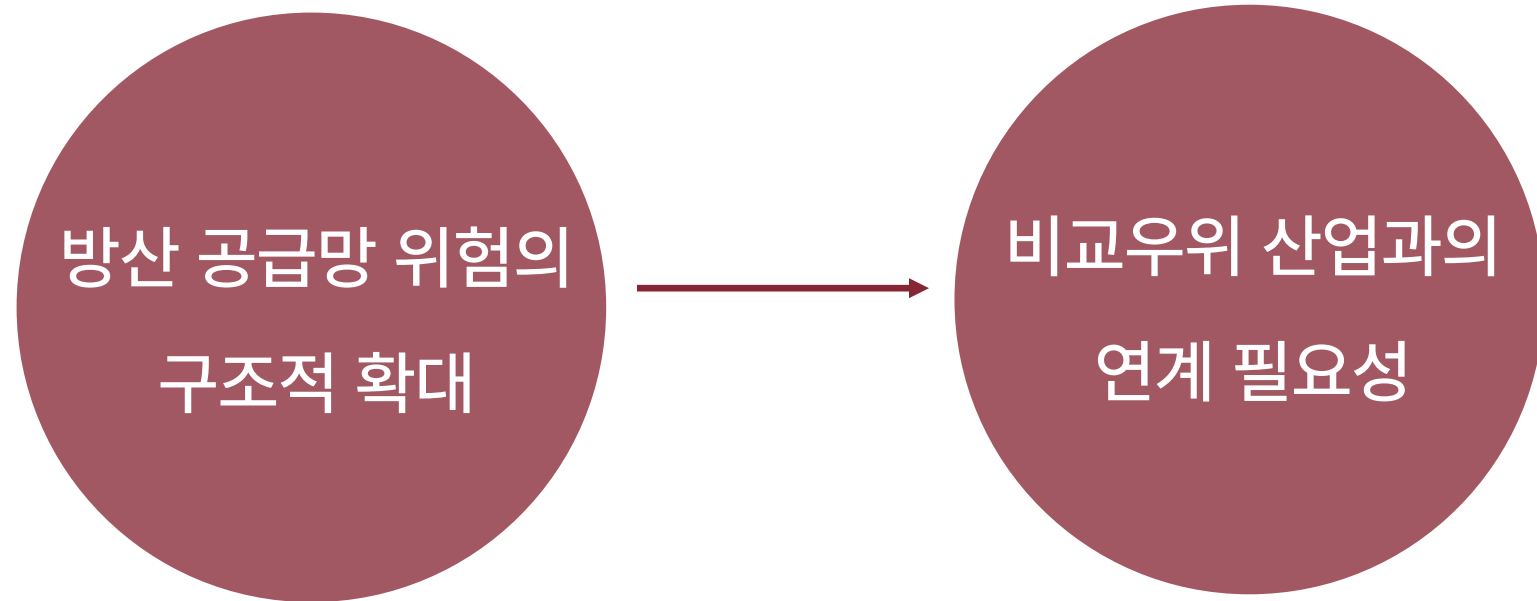
군사적 자강 | 구조 전환

인구 감소 시대의
군사력 한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인구 감소와 전력 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의 군사적 자강은 병력 규모 확대가 아니라,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통해 질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방산을 통한 자강 | 국제연대를 활용한 산업 역량 강화



“방산 분야의 공급망 위험 요소는 국제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원전, 조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구매국과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조선을 통한 자강 | 해양 안보의 산업화



경제기술안보연구원

해양 안보와
글로벌 군사·상업 수요 결합

동맹 및 파트너 국가
해양력의 산업적 기반 마련

“조선업은 해양 안보와 군사·상업 수요가 결합되는 전략 산업이므로, 동맹국의 해양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산업 기반과 기술 역량을 동시에 축적할 수 있는 자강의 핵심 축이다.”

원전을 통한 자강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의 교차점

수출 확대와
핵심 기술 축적 병행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수출과 공급망을 확대하되, 핵심 기술과 핵 연료주기 (채굴-농축-연료 제작-발전-처리) 역량은 국가 차원에서 축적되어야 한다.”

연대와 자강의 선순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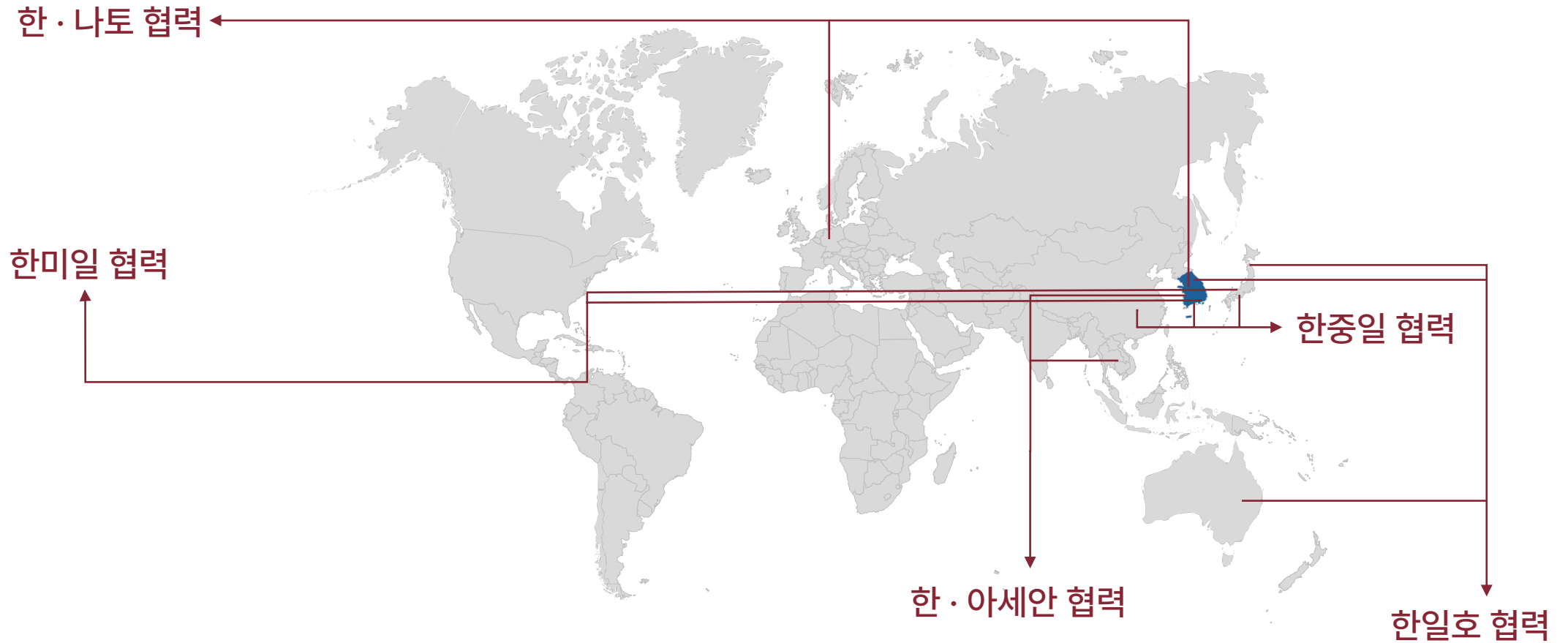


위기 속에서 선택지를 늘리는 국가 전략

“연대 없는 자강은 고립을 초래하고,
자강 없는 연대는 위기 앞에서 공허해진다.”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의 길

“(자강의 목표인) 전략적 자율성은 어느 한 강대국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대를 설계하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의 길

“국제질서의 혼돈 속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전략 선택의 폭이 제한되나,
이는 숙명적 제약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의 대상이다.”

한미동맹을 소다자 협력으로 보완하고,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하며,
AI 시대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자강을 뒷받침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자산

∴ 연대의 규모가 아니라, 연대를 통해 무엇을 확보하고,
이를 어떠한 자강으로 전환하느냐가 중요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의 여명(黎明)



경제기술안보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Economy, Technology, and Security

감사합니다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
한국의 생존과 번영 전략

경제기술안보연구원 총서 출판기념회